2017지방직 9급 B책형 국어 (아주 자세하고 신선한 해설)

- 영보이 저서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1)**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O) / 퍼러(ㅓ) + ㅣ→ 퍼레(ㅔ)

◆ 퍼렇다 - 퍼레, 퍼러니, 퍼렇소

☺**영보이 암기tip) 레**몬이 덜 익어 퍼**레**. 그럼 카**레** 먹어. < **레**몬 - 퍼**레** - 카**레**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X) → **똬리**

◆ 똬리: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

☺**영보이 암기tip)** 내 귀여운 딸이 똬리 튼 뱀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 내 귀여운 **딸이** - **똬리** 튼 뱀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둬라. (X) → 머**리**말

◆ '머리말'은 사잇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머리말'이 옳다. 머리말은 표기나 발음이나 변화가 없다.

☺**영보이 암기tip)** 머**리**말을 무엇으로 정할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 < 허**리** - 머**리**말 >

④ 문을 잘 잠궈야 한다. (X) → 잠**가**야

◆ 잠그다 - 담**가**, 잠그니

☺**영보이 암기tip)** 문을 잘 잠**가**야 레이디 **가가**를 만날 수 있다. < 레이디 **가가** - 잠**가** >

☺**영보이 암기tip) 그**리스에서 문을 잠**그**는 습관을 가져라. < **그**리스 - 잠**그**는 >　**정답: ①**

◆ 밑줄 친 말의 의미는? **(2017지방직9급 B책형 문2)**

<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편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말꼬리를 물다

☺**영보이 암기tip) 말꼬리를 물어**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O) - 말길이 되다

◆ 말길이 되다: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

☺**영보이 암기tip) 말길**이 되어 **나를 남에게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말이 있다.

☺**영보이 암기tip)**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는 **말이 있다**.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 맛(을) 붙이다.

☺**영보이 암기tip)** 등산에 재미를 붙이고 **맛을 붙이다**.　**정답: ②**

◆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7지방9 B책형 문3)**

○ 쌈: 바늘 (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 개

① 80　② 82　③ 90　④ 94

○ 쌈: 바늘 (24) 개를 묶어 세는 단위

☺**영보이 암기 tip) 24살 때 바늘** 가지고 1대 **24 쌈**박질. 다 덤벼! < **쌈 - 24** >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20)첩

☺**영보이 암기 tip) 제20회 탕약** 빨리 먹기 대회. 아이고, 쓰다. 사탕 줘. < **제 - 20** >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 개

☺**영보이 암기 tip)** 오이가 왔어요. 애들은 가라. **거리**에서 **오이** 50개 50원에 팝니다. 아놔,, 애들은 가래.ㅜ.ㅜ

< **50 - 거리** >

◆ 24 + 20 + 50 = **94** **정답: ④ 94**

◆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2017지방직9 B책형 문4)**

㉠春雨暗西池/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屛風/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墻頭㉣杏花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① ㉠ ② ㉡ ③ ㉢ ④ ㉣

◆ 이 작품은 허난설헌의 '봄비'이다.

1)규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젊은 여인이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외로움과 고독을 표현함.

2)5언 절구의 한시로 서정적이고 독백적이며 애상적인 분위기 / 3)선경후정의 전개방식.

4)객관적 상관물: '봄비, 찬바람, 살구꽃' 등으로 표현하여 여인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나타냄.

◆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글쓴이가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어떠한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는 표현 방식이다.

★ 이 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봄비, 찬바람, 살구꽃이지만 그 중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살구꽃**이라 할 수 있다. 봄비와 찬바람도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아니다. **정답:**④ ㉣행화(杏花)[살구꽃]

◆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5)**

재 너머 셩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ᄐᆞ고
아히야 네 권농 겨시냐 뎡좌슈(鄭座首) 왓다 ᄒᆞ여라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 이 작품은 정철의 시조이다.

< **현대어 풀이**: 고개 너머 사는 성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 누워 있는 소 발로 차 일으켜 언치만 놓아 눌러 타고 / 아이야, 네 주인 계시느냐? 정좌수 왔다고 하여라, >

◆ 성권농은 우계 성혼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해학적이고 전원 생활의 멋과 풍류를 주제로 한다.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O)

◆ 화자는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설레며 친구 성혼과 술 한잔 하며 소박하고 여유로운 풍류를 즐기고 있다.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O)

◆ 술을 얼른 먹고 싶어 누워 있는 소를 일으켜 올라타려고 발로 박차는 생동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X)

◆ **언치만 얹어서 소에 올라탄다**고 했으므로 격식 차리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격식 없는 모습**을 보여 준다.

◆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O)

◆ '아히'에게 자기가 왔음을 주인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또한 대화체로 부르는 말도 된다. **정답: ③**

(문제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6)**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②	長廣舌	流言非語	辯明
③	長廣說	流言蜚語	辯明
④	長廣說	流言非語	辨明

(문제 6) 정답 및 해설 (2017지방직9 B책형 문6)

	㉠	㉡	㉢
①	長廣舌	流言蜚語	辨明 (**O**)

◆ 지루한 ㉠長廣舌(장광설)로 인해 관중(觀衆)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始作)했다.

1)長廣舌(장광설): 長(길 장/어른 장) 廣(넓을 광) 舌(혀 설)

a)의미: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長廣舌(장광설)에서 '설'자는 '舌(혀 설)'을 쓰는데 '舌(혀 설)'에는 '**千**(일천 천)'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연사(演士)의 자기 자랑 **천**(千: 일천 천) 마디가 長廣**舌**(장광설)과 같이 너무 지루하여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 정보화(情報化) 사회일수록 ㉡流言蜚語(유언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도 높다.

1)流言蜚語(유언비어): 流(흐를 유(류)) 言(말씀 언) 蜚(바퀴 비/날 비) 語(말씀 어)

a)의미: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 流言蜚語(유언비어)에서 '비'자는 '蜚(바퀴 비/날 비)'를 쓰는데, '**虫**(벌레 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베어그릴스가 **벌레**(虫 :벌레 충)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流言蜚語(유언비어)가 퍼졌다.

* 유의어 < 도청도설, 가담항설 >

1)道聽塗說(도청도설): 道(길 도) 聽(들을 청) 塗(칠할 도/길 도) 說(말씀 설).

a)의미: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

2)街談巷說(가담항설): 街(거리 가) 談(말씀 담) 巷(거리 항) 說(말씀 설).

a)의미: 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 '뜬소문'으로 순화.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辨明(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1)변명(辨明): 辨(분별할 변, 갖출 판, 두루 편, 깎아내릴 폄) 明(밝을 명)

a)의미: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b)발음: [변:명](긴소리)

★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변명(辨明)'에서 '변'자에는 '刂(칼 도)'가 얼핏 보인다. 그리고 '명'은 '**밝을 명**(明)' 그 자체이다.

☺영보이 암기tip) 평소에 **칼**(刂: 갈 도)을 가지고 다니는 살인범이 조명이 **밝은**(明: 밝을 명) 취조실에서 **辨明**(변명)을 늘어놓는다.

< **헷갈리는 한자어**: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을 의미하는 변호(辯護)는 '말 잘할 변(辯)'을 쓴다. 또한 '말 잘할 변(辯)'에는 '말씀 언(言)'이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하자. >

(문제 20)정답: ①

◆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7)**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돋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忍冬茶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 이 작품은 정지용의 '인동차'이다.< 인동차는 '忍(참을 인), 冬(겨울 동)'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을 견디는 차'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힘든 겨울 인동차를 마시고 시련을 극복하려는 초월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1. 현대시, 자유시
2. 동양적, 관조적, 탈속적, 회화적
3.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각적 대조
4. 한겨울에 인동차를 마시며 인내하는 화자의 모습
5. 힘든 세월을 초월하려는 노주인의 인내와 정신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O) - '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얗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얗다. > 로 보아 산중의 고적(孤寂)한 공간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O) -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돋아 **파릇하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색채의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O) - 이 작품을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책력도 없는 고적한 하얀 산중에 인동차를 마시는 화자의 모습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다. (X) → **'잡착하다' 는 '참척하다' 의 원말로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라는 의미이다. **정답: ④**

◆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8)**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① [주체 -], [객체 +], [상대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① **주체**: 나(내가) - 나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주체높임법을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주체 -**]
◆ 주체 높임법: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여 표현한다.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① **객체**: 선생님**께**, **드렸다** - 객체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을 선생님**께**로 높였고 '주다'는 '**드렸다**'고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객체 +**]
◆ 객체 높임법: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ᄉᆞᆯ -, -ᄉᆞᆸ -, -ᄌᆞᆯ -, -ᄌᆞᆸ -, -ᄉᆞᅀᆞᆯ -, -ᄉᆞᅀᆞᆸ -'을 붙여 표현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뵙다', '**드리다**', '여쭈다'를 써서 표현한다.
① **상대**: 화자의 상대편인 숙희가 상대이다. 그런데 상대 '숙희'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 -**]
◆ 상대 높임법: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한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정답: ①**

◆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9)**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 글쓴이의 생각은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로 보아 외부적 환경, 사회 상황, 맥락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환경, 사회 상황, 맥락' 등과 **상반**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더 자세히 말해 내재적 관점이 아닌 외재적 관점, 즉 효용론적, 반영론적, 표현론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 문학의 효용론: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 독자와 작품과의 관계를 중시.
◆ 문학의 반영론: 문학작품이 쓰여진 당시 사회상황을 중시
◆ 문학의 표현론: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중시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O) - 칸트의 입장 / 외재적 관점
◆ 이 문장은 시를 감상할 때 시어와 운율을 통해서 감상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내재적인 감상방법, 작품 그 자체로만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글쓴이의 입장 / 내재적 관점 / 반영론
◆ '사회의 모순을 고발, 개혁의 전망도 제시'로 보아 칸트의 입장이 아닌 외부적 환경, 사회 상황, 맥락 등을 중시하는 글쓴이의 입장이다.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글쓴이의 입장 / 효용론
◆ '독자의 정서적 성장'으로 보아 외재적 관점이고 효용론에 해당한다.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 글쓴이의 입장 / 반영론
◆ '사회 상황'으로 보아 외재적 관점이고 반영론에 해당한다. **정답: ①**

◆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10)**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여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① ㉠:심심풀이 ② ㉡:안잠 ③ ㉢:몰매 ④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① ㉠파적(破寂): 심심풀이 (O)
② ㉡새우잠 :안잠 (X) →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 안잠: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③ ㉢난장(亂杖): 몰매 (O)
④ ㉣사관(四關):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O)

◆ 김유정: '구인회'에 참가하였으며, 농촌과 도시의 토속적 인간상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려 내었다. 작품에 <봄봄>, <동백꽃>, <따라지>, <만무방> 따위가 있다.

◆ 김유정의 '**만무방**': 김유정이 지은 단편 소설. 응칠, 응오 두 형제가 부랑(浮浪)하는 삶을 중심으로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한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1935년에 발표)

◆ 김유정의 '**봄봄**': 김유정이 지은 단편 소설. 판소리계 소설과 사설시조를 이어받아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향토적 정서를 바탕으로 특유의 해학적 어조와 문체로 형상화하였다. (1935년에 발표)

◆ 김유정의 '**동백꽃**': 김유정이 지은 단편 소설. 지주의 딸과 소작인 아들의 순박한 사랑을 토속적 해학을 가미하여 서술한 작품이다. (1936년에 발표)

◆ 김유정의 '**따라지**': 도시 빈민을 소재로 하여 1930년 김유형(둘째 누이)의 집에 붙어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며 살았던 사직동 시절의 작가 경험이 투영된 작품이다. < **cf.** 따라지: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정답: ②

◆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11)**

> 내히 죠타 ᄒᆞ고 놈\ 슬흔 일 ᄒᆞ지 말며
> 놈\이 ᄒᆞᆫ다 ᄒᆞ고 義아니면 좃지 말니
> 우리ᄂᆞᆫ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① 率性　② 善交　③ 遵法　④ 篤學

> 내히 죠타 ᄒᆞ고 놈\ 슬흔 일 ᄒᆞ지 말며 < **내가 좋다 하여 남이 싫은 일 하지 말며** >
> 놈\이 ᄒᆞᆫ다 ᄒᆞ고 義아니면 좃지 말니 < **남이 한다고 하여 의(義)가 아니면 좇지 말라,** >
> 우리ᄂᆞᆫ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
> ◆ 이 작품은 변계량의 시조이다. 평시조이고 교훈적 성격의 작품이다. 주제는 의(義)를 지키고 천성을 지켜 생긴 대로 살자.

① 率性(솔성): 率(거느릴 솔, 비율 률(율), 우두머리 수) 性(성품 성) (**O**)

1)의미: 타고난 성질 / 천성을 좇음

◆ 세 번째 연 '우리ᄂᆞᆫ **天性을 직희여** 삼긴 대로 ᄒᆞ리라 <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로 보아 정답은 率性(솔성)이다.

② 善交(선교): 善(착할 선) 交(사귈 교). 발음: [선:교](긴소리) / 1)의미: 잘 사귐

*** 동음이의어**

1)宣敎(선교): 宣(베풀 선) 敎(가르칠 교) / a)의미: 종교(宗敎)를 선전하여 널리 폄.

◆ '종교(宗敎)를 선전하여 널리 폄'을 의미하는 '선교(宣敎)'는 '宣(베풀 선) 敎(가르칠 교)'를 쓰는데, '宣(베풀 선)'에는 '宀(집 면)'이 들어가고 '敎(가르칠 교)'에는 '**子**(아들 자)'가 얼핏 보인다.

☺**영보이 암기tip) 집**(宀: 집 면)에서 **아들**(子: 아들 자)과 함께 **宣敎**(선교) 활동을 펼쳤다.

③ 遵法(준법): 遵(좇을 준) 法(법 법)

1)의미: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발음: [준:뻡](긴소리)

◆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을 의미하는 '遵法(준법)'은 '遵(좇을 준) 法(법 법)'을 쓰는데, '遵(좇을 준)'에는 '辶(쉬엄쉬엄 갈 착)'이 들어가고 '法(법 법)'에는 '氵(물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물**(氵: 물 수)속에서 **쉬엄쉬엄 가는**(辶: 쉬엄쉬엄 갈 착) 척하면서 슬그머니 소변을 보지 않는 **遵法**(준법)정신이 필요하다.

④ 篤學(독학): 篤(도타울 독) 學(배울 학, 가르칠 교, 고지새 할) / 1)의미: 학문에 충실함

◆ '학문에 충실함'을 의미하는 篤學(독학)은 '篤(도타울 독) 學(배울 학)'을 쓰는데, '篤(도타울 독)'에는 '**馬**(말 마)'가 들어가고 '學(배울 학)'에는 '**子**(아들 자)'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말**(馬: 말 마)에게 먹이를 주는 **아들**(子: 아들 자)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篤學**(독학)한다.

cf. 敦篤(돈독): 敦(도타울 돈) 篤(도타울 독) / 1)의미: 도탑고 성실함

2)예: 돈독(敦篤)한 우정 / 우애가 돈독(敦篤)하다 / 그는 신앙심이 돈독(敦篤)하다

◆ '도탑고 성실함'을 의미하는 敦篤(돈독)은 '敦(도타울 돈) 篤(도타울 독)'을 쓰는데, '敦(도타울 돈)'에는 '子(아들 자)'가 들어가고 '篤(도타울 독)'에는 '馬(말 마)'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우리 **아들**(子: 아들 자)은 반 친구들과 **말**(馬: 말 마)고기를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敦篤**(돈독)하다.

* 동음이의어

1)獨學(독학): 獨(홀로 독) 學(배울 학)

a)의미: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함

◆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함'을 의미하는 獨學(독학)은 '獨(홀로 독) 學(배울 학)'을 쓰는데, '獨(홀로 독)'에는 '犭(큰 개 견)'이 들어가고 '學(배울 학)'에는 '子(아들 자)'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큰 개**(犭: 큰 개 견)를 데리고 다니는 **아들**(子: 아들 자)거지가 **獨學**(독학)으로 고시에 합격하였다.

정답: ①

◆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12)**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단하게 되었다.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X) → **버젓이**

◆ 버젓이: 「부사」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백주(白晝)에 버젓이 대중 앞에 나섰다. > / 남의 축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 버젓이 개업한 의사가 월급쟁이 앞에서 엄살을 떨다니. >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X) → 뒤**져**내고

◆ 뒤져내다: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단하게 되었다. (O)

◆ 깨단하다: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X) → 허구**한**

◆ 허구하다: 「형용사」 '허구**한**' 꼴로 쓰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영보이 암기tip) 내 친구 '**허구한**'은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하지만 허구**한** 날 술만 마신다.

< 술 **한** 잔 - 허구**한** >

정답: ③

(문제 16)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7지방직9 B책형 문13)**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① ㉠ ② ㉡ ③ ㉢ ④ ㉣

(문제 13) 정답 및 해설 (2017지방직9 B책형 문13)

① ㉠확집(確執): 確(굳을 확) 執(잡을 집)

1)의미: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確執(확집)은 '確(굳을 확) 執(잡을 집)'을 쓰는데, '確(굳을 확)'에는 '石(돌 석)'이 들어가고 '執(잡을 집)'에는 '土(흙 토)'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흙**(土: 흙 토)더미에서 예쁜 **돌**(石: 돌 석)을 찾겠다는 신념이 **確執**(확집)한 돌 수집가가 있다.

② ㉡위의(威儀): 威(위엄 위) 儀(거동 의)

1)의미: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예법에 맞는 몸가짐.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가리키는 威儀(위의)는 '威(위엄 위) 儀(거동 의)'를 쓰는데, '威(위엄 위)'에는 '女(여자 여)'가 들어가고 '儀(거동 의)'에는 '亻(사람 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지조가 있는 선비는 힘이 약한 **여자**(女: 여자 여)와 가난한 **사람**(亻: 사람 인)에게도 **威儀**(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강도(强度): 强(강할 강) 度(법도 도, 헤아릴 탁, 살 택)

1)의미: 센 정도.

◆ '센 정도'를 가리키는 强度(강도)는 '强(강할 강) 度(법도 도)'를 쓰는데, '强(강할 강)'에는 '弓(활 궁)'이 들어가고 '度(법도 도)'에는 '广(집 엄)'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아주 강한 **强**度(강도)로 **집**(广: 집 엄)을 향해 **활**(弓: 활 궁)을 쏘면 창문이 다 부서질 거야.

*** 동음이의어**

1)强盜(강도): 强(강할 강) 盜(도둑 도). 발음: [강:도](긴소리)

a)의미: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强盜(강도)는 '强(강할 강) 盜(도둑 도)'를 쓰는데, '强(강할 강)'에는 '弓(활 궁)'이 들어가고 '盜(도둑 도)'에는 '氵(물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强盜**(강도)는 훔친 **활**(弓: 활 궁)을 경찰에게 들킬까봐 **물**(氵: 물 수)속에 숨겨놓았다.

④ ㉣일조(日照) (**X**) → 一朝(일조)

◆ 一朝(일조): 一(하나 일) 朝(아침 조)

1)의미: 하루아침

◆ '하루아침'을 의미하는 '一朝(일조)'는 '一(하나 일) 朝(아침 조)'을 쓰는데, '一(하나

일)'은 그 자체로 쓰고 '朝(아침 조)'에는 '月(달 월)'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한**(一: 하나 일) **달**(月: 달 월)에 한 번 **一朝**(일조)에 아침조회를 한다.

* 동음이의어 < 일조 >

1)一助(일조): 一(한 일) 助(도울 조).

a)의미: 얼마간의 도움이 됨. 또는 그 도움.

◆ '얼마간의 도움이 됨'을 가리키는 一助(일조)는 '一(한 일) 助(도울 조)'를 쓰는데, '一(한 일)'은 그 자체로 쓰고 '助(도울 조)'에는 '力(힘 력)'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하나**(一: 하나 일)라도 국가의 발전에 **一助**(일조)할 수 있도록 **힘**(力: 힘 력)을 기울여야 한다.

2)日照(일조): 日(날 일) 照(비칠 조)

a)의미: 해가 내리 쬠.

◆ '해가 내리 쬠'을 의미하는 日照(일조)는 '日(날 일) 照(비칠 조)'를 쓰는데, '日(날 일)'은 그 자체로 쓰고 '照(비칠 조)'에는 '灬(불 화)'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여름에는 **일요일**(日: 날 일)마다 **불**(灬: 불 화)같은 **日照**(일조)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22) 정답: ④

◆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14)**

>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흐드러지게(기본형: 흐드러지다): 「**형용사**」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흐무러지다 /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 ◆ '흐드러지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찍은(기본형: 찍다): 「**동사**」 어떤 대상을 촬영기로 비추어 그 모양을 옮기다. ◆ '찍다'는 **동사**로만 쓰인다.

㉢설레는(기본형: 설레다): 「**동사**」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 /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움직이다. / 물 따위가 설설 끓거나 일렁거리다. ◆ '설레다'는 **동사**로만 쓰인다.

㉣충만한(기본형: 충만하다): 「**형용사**」 한껏 차서 가득하다. ◆ '충만하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없는(기본형: 없다): 「**형용사**」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로 거의 99% 쓰인다**.

★ 따라서 정답은 형용사로 쓰인 ㉠, ㉣, ㉤를 고르면 된다. **정답: ②**

◆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15)**

>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 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
>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

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 네 번째 단락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로 보아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네 번째 단락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로 보아 옳은 지문이다.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로 보아 처음에는 불안전하다는 설명은 맞다. 하지만 세 번째 단락에서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로 보아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 네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로 보아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그 세세한 과정 안에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여 열정과 헌신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②**

◆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16)**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림하다	㉢
진압하다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② ㉡: 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 짐승을 죽이다. < 따라서 죽이다는 옳음 >

◆ 잡다: 짐승을 죽이다. < 그는 개를 잡아 개장국을 끓였다.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 오늘은 손님이라도 오는지 아침부터 김 영감은 닭을 잡고 있다. > < kill >

② ㉡: 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 < 따라서 쥐다는 옳음 >

◆ 잡다: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 <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 / 멱살을 잡고 싸우다 /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 < hold >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X) → '어림하다'가 아니라 '**담보로 맡다**.'이다.

◆ 잡다: **어림하거나 짐작하여 헤아리다**. < 이 책들을 권당 5,000원으로 잡아도 100권이면 50만 원이다. / 수험 준비 기간을 세 달로 잡은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무리이다. / 우리는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아 손해를 많이 봤다. / 이 물건의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 < count >

★ 잡다: **담보로 맡다** < 토지를 담보물로 **잡다**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 은행에서는 고객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 > <take charge of security: 담보를 맡다 >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 기세를 누그러뜨리다. < 따라서 진압하다는 옳음 >

◆ 잡다: 치솟는 물가를 잡다 / 산불이 난 지 10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다. / 정부는 빨리 부동산 투기 열기를 잡아야 한다.

정답: ③

◆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2017지방직7 B책형 문17)**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 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O)

◆ 세 번째 단락에서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로 보아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X)

◆ 두 번째 단락에서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로 보아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단지 중부의 환경적 특성만 알 수 있을 뿐이다**.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O)

◆ 세 번째 단락에서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로 보아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한다.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O)

◆ 천 번째 단락에서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로 보아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지방직9 A책형 문18)**

서론: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X) → 결론을 보면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라 되어 있는데, 보기①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본문과 무관한 내용이다.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X) →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보기 ②는 내수 시장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무관하다.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X) → 위 박스 비가격 경쟁적 요인 중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 ㄴ. 품질 개선 부족'으로 보아 보기 ③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문이 아니라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어 주제문으로 부적절하다.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 본론에서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을 '가격 경쟁력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으로 제시하고 결론에서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로 보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제문은 보기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19)**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지요.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X) → ㉢'저'만 1인칭 대명사이다.

◆ ㉠그쪽: 그쪽은 이인칭, 삼인칭 모두 가능하나 위 지문은 **이인칭** 대명사로 쓰였다. < 듣는 이 또는 듣는 이들을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 < **cf.** 그쪽(3인칭):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그쪽(3인칭)의 생각은 어떤 것 같소? / 그쪽(3인칭)에서는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 우리의 비밀을 그쪽(3인칭)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

● ㉢저: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X) →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우리 엄마/우리 마누라/우리 신랑/우리 아기/우리 동네/우리 학교 교정은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다. >

◆ 따라서 나와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O)

◆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이 글에서 할머니를 가리킨다. 따라서 ㉣할머니와 ㉦당신은 모두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다.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X) → ㉤본인은 할머니를 가리키고 ㉥**당신**은 내가 지금 대화하는 **청자**인 **그쪽**을 가리킨다. **정답: ③**

◆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2017지방9 B책형 문20)**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X) →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을 가리키는 것은 ㉤이 된다. ㉠은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로 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X) → '즉'으로 보아 ㉡은 ㉠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상술이다. 오히려 ㉢이 ㉠,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O)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로 보아 ㉠' ~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 ~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를 부정하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X) → ㉤이 ㉢, ㉣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 ㉣이 ㉤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 영보이 저서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절판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와 그의 친구들 < 절판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